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한국 시니어보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도 높아!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시니어)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쇠함'을 떠올리는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의 60대는 물론, 70대와 80대 시니어들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일상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시니어 세대는 교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구성원이자, 신앙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다. 이러한 시니어 세대의 영적 잠재력과 사역적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우리 연구소와 함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만 60세 이상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을 대상으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넘버즈 <298호>는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한인교회 시니어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사역에 대한 인식 등을 한국교회 시니어들과 비교해 살펴봄으로써, 양국 교회의 시니어 사역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조사

조사개요

구 분	시니어 성도
조사 대상	만 60세 이상 미주한인교회 남녀 성도
표본 규모	총 711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스노우볼 샘플링 (Snowball Sampling)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스노우볼링 방식) - 1단계 : 교회 목회자에게 설문 URL 전달 - 2단계 : 교회 목회자가 해당 교인(만 60세 이상)에게 문자를 통해 설문 링크 전달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 일부 교회의 응답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집된 교회의 응답 표본을 30명으로 고정하여 가중치 부여함. 총 711명을 조사했으나 가중치 적용 후 554명이 됨.
조사 기간	2024년 12월 16일 ~ 2025년 2월 27일 (총 74일간)
조사 주체 • 실사(Fieldwork)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자료 처리 • 분석 • 보고서 작성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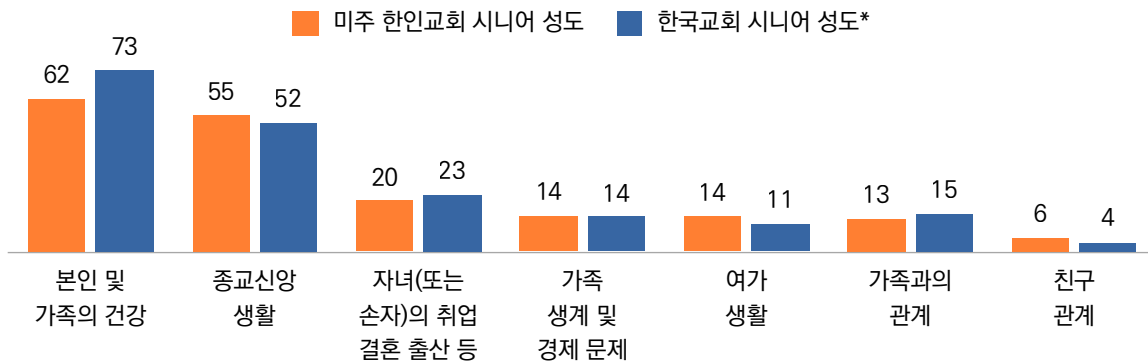
01

[일상생활]

일상 최대 관심사, 미국·한국 시니어 모두 ‘건강과 신앙생활’!

-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이 일상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본인 및 가족의 건강’(62%)과 ‘종교신앙 생활’(55%)을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와 비교했을 때, 신앙생활 관심도는 비슷하나, 건강에 대한 관심은 한국 시니어 응답자가 미주 한인 시니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일상 관심사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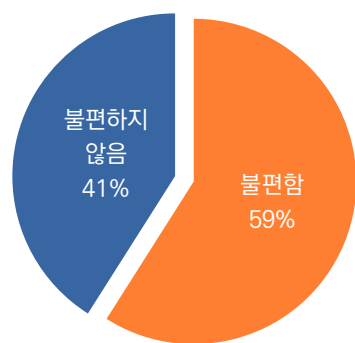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교령 교인의 생활 및 신앙 인식과 신앙 실태 조사 보고서, 2022.08.(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2022.05.18.~06.28.)

한인교회 시니어 10명 중 6명, 영어 소통에 불편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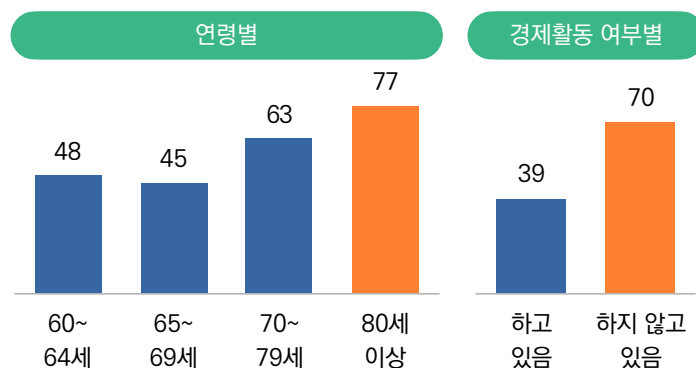
-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에게 일상 생활에서 혼자 영어로 소통 시 불편함이 있는지 묻은 결과, 10명 중 6명 정도(59%)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생활 소통 불편 정도*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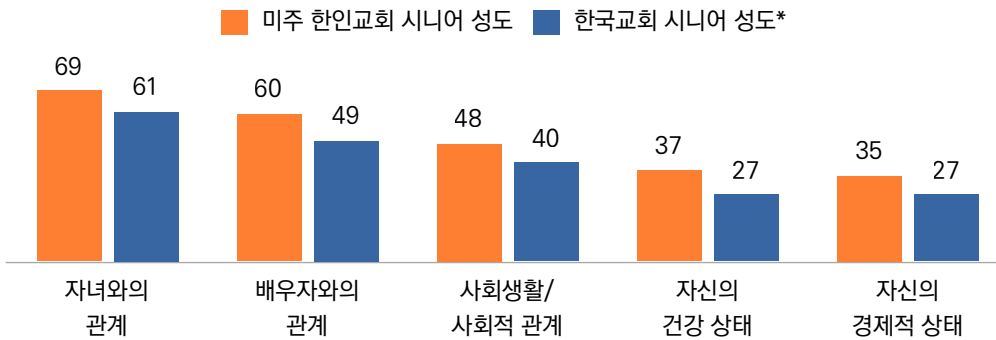
[그림] 생활에서 영어 소통 시 ‘불편함’ 느낌 비율 (%)



미국 시니어, 한국 시니어보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도 높아!

-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는 일상생활 만족도 전반에서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보다 더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60%로, 한국 시니어(49%)보다 10%p 이상 높아 차이가 두드러졌다.
- 한인교회 시니어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자녀와의 관계'(69%)였으며, 이어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생활/사회적 관계' 순이었다.

[그림] 일상생활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한다' 비율**, %)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교령 교인의 생활 및 신앙 인식과 신앙 실태 조사 보고서, 2022.08.(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2022.05.18.~06.28.)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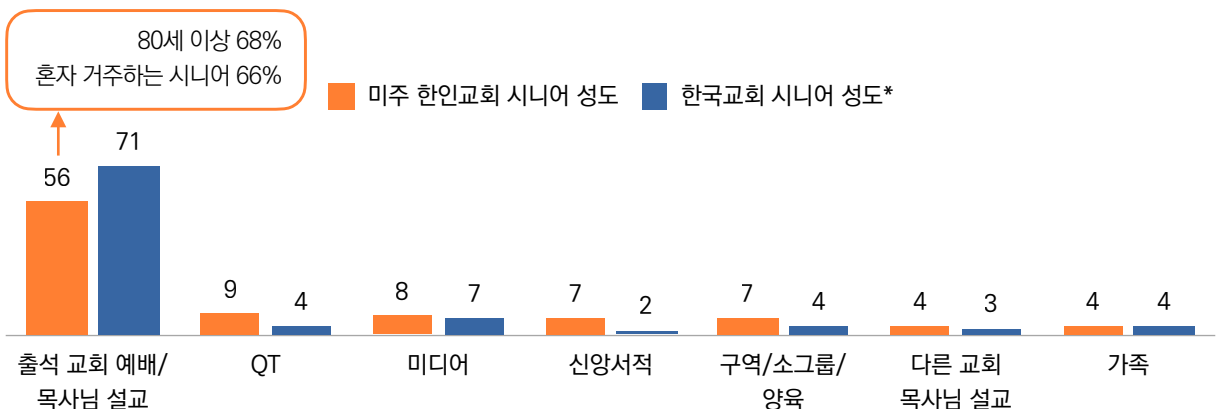
02

[신앙생활 및 교회 생활]

미국 시니어, 한국 시니어보다 신앙성장에 목회자 의존도 낮아!

-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은 요인을 묻은 결과,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 시니어 모두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히 미국 시니어는 56%로 한국 시니어(71%)보다 낮았다.
- 또한 80세 이상(68%)과 혼자 거주하는 시니어(66%)에서 '예배·담임목사 설교'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연령 층과 독거노인일수록 담임목사의 설교와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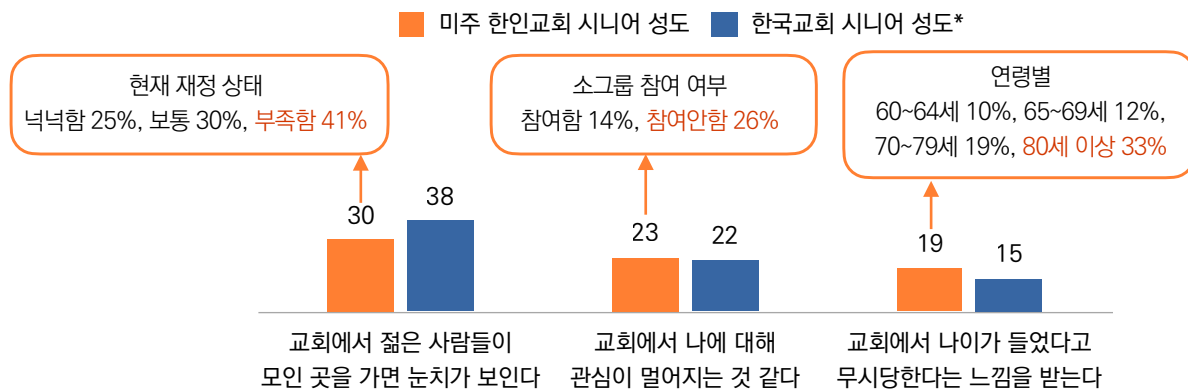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보고서(시니어 성도 조사), 2024.09.(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942명, 2024.05.01.~06.12.)

한미 시니어 10명 중 3~4명, 교회 내 젊은이들 관계에 어려움 경험!

- 노인으로서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몇 가지 살펴본 결과,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면 눈치가 보인다’는 항목에 미국 시니어 30%, 한국 시니어 3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국과 미국을 막론하고 시니어 성도 10명 중 3~4명이 젊은이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교회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에도 한인교회 시니어 19%, 한국교회 시니어 15%가 동의했다.
-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가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낀 비율은 전 항목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재정 상태가 어려울수록, 소그룹 참여율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교회/교회 공동체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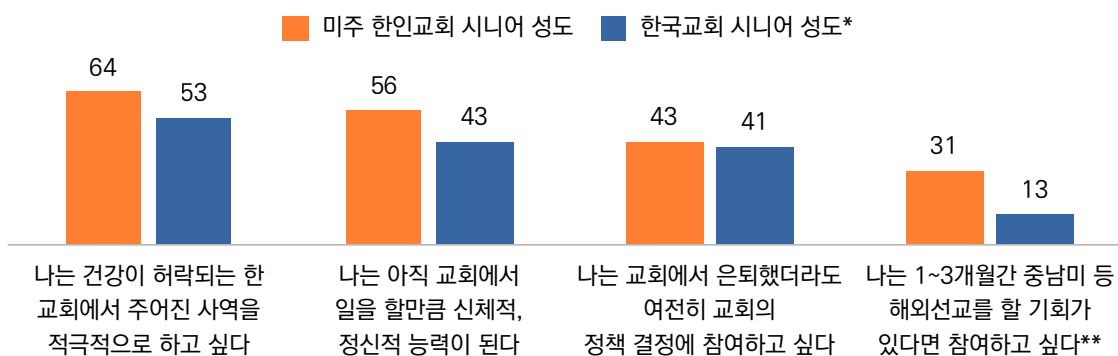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아드폰테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보고서(시니어 성도 조사), 2024.09.(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942명, 2024.05.01.~06.12.)

**4점 척도

미국 시니어, 은퇴 후 '사역·선교 참여 의지' 한국 시니어보다 더 높아!

- 65세 이상 직분 은퇴자 및 직분 없는 시니어 성도를 대상으로 교회 내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묻은 결과, 미국 시니어 성도는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에 64%가 '그렇다'고 응답해, 한국 시니어(53%)보다 11%p나 높았다. 또한, '해외선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한국 시니어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이는 미국 시니어 성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역과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교회에서의 시니어의 역할 인식 (65세 이상 직분 은퇴자 및 직분 없는 자,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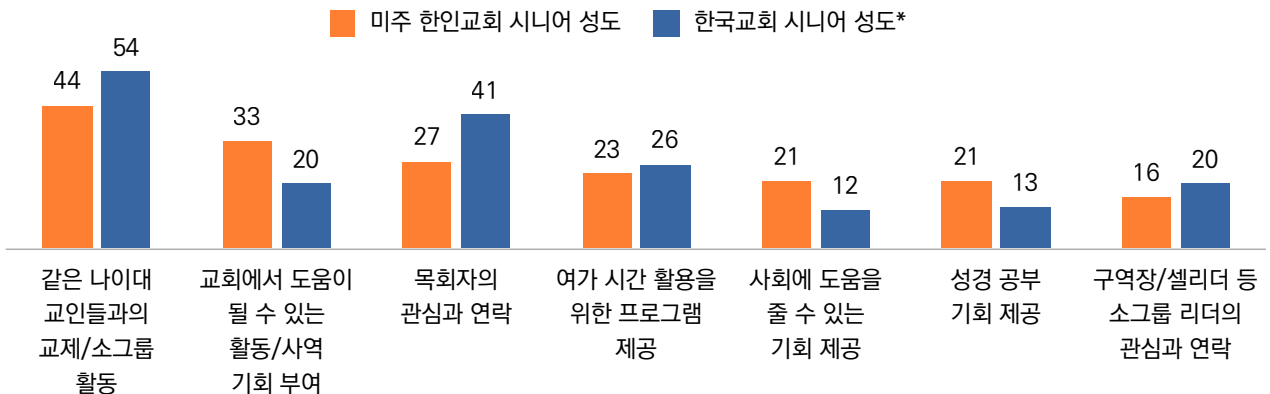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아드폰테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보고서(시니어 성도 조사), 2024.09.(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942명, 2024.05.01.~06.12.)

**한국교회 시니어 설문조사의 보기는 '나는 늦은 나이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임

미국 시니어, 한국 시니어보다 소그룹 욕구 낮아

- 미국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은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소그룹 활동’이 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사역 기회 부여’ 33%,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27% 등의 순이었다.
- 한국 시니어들은 소그룹 활동 외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2순위, 41%)에 대한 욕구가 컸는데, 반해 한인교회 시니어는 교회(33%)와 사회(21%)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참여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 특히 소그룹 활동에 대해 한국 시니어가 미국 시니어보다 욕구가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미주 한인교회보다 소그룹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림]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 (1+2순위, %)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보고서(시니어 성도 조사), 2024.09.(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942명, 2024.05.01.~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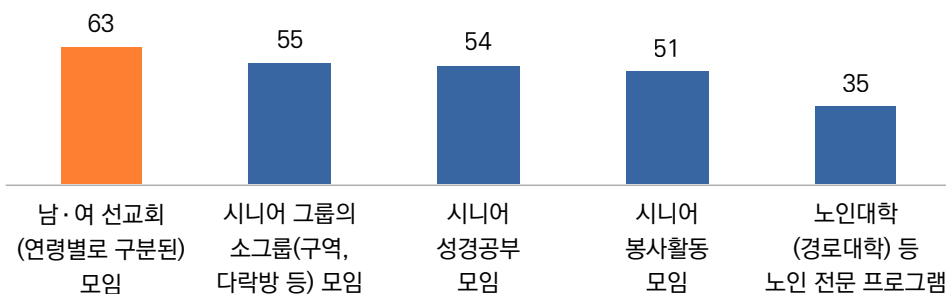
03

[시니어 프로그램]

시니어 활동, ‘남·여 선교회’ 참여가 가장 활발!

- 미국 시니어 성도 대상으로 각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 내 시니어 프로그램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남·여 선교회 모임’ 참여율이 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그룹’ 55%, ‘성경공부 모임 54%’ 등의 순이었다.
- 반면, ‘노인대학(경로대학)’과 같은 노인 전문 프로그램 참여율은 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이는 미국 시니어 성도들이 관계 중심(선교회, 소그룹)과 신앙 훈련 중심(성경공부)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봉사활동 참여율도 절반을 넘어, 앞서 살펴본 ‘시니어의 역할 인식’과 ‘시니어 성도가 교회에 바라는 점’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시니어 성도들이 소극적 돌봄 대상이 아닌 ‘참여하고 기여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림] 시니어 프로그램 참여도** (각 프로그램 운영된다는 응답자, ‘매우 활발하+약간 참여’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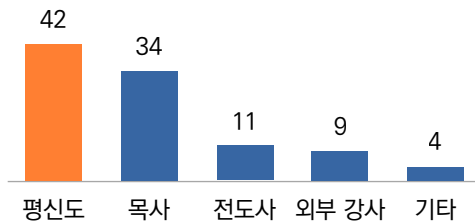
*4점 척도

**기타 응답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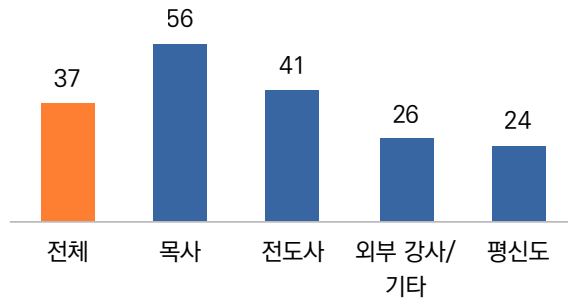
미국 시니어 프로그램, 절반 가까이 평신도가 인도!

- 시니어 프로그램 인도자의 직분을 조사한 결과, ‘평신도’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목사’ 34%, ‘전도사’ 11% 등의 순이었다.
- 그러나 인도자 직분에 따른 만족도(‘만족한다’ 비율)를 보면, 목사(56%), 전도사(41%) 등 사역자에 대한 만족도가 평신도(24%)보다 훨씬 높았다.

[그림] 시니어 프로그램 인도자의 직분
(시니어 프로그램 참여자, %)



[그림] 시니어 프로그램 인도자에 대한 만족도
(시니어 프로그램 참여자, 직분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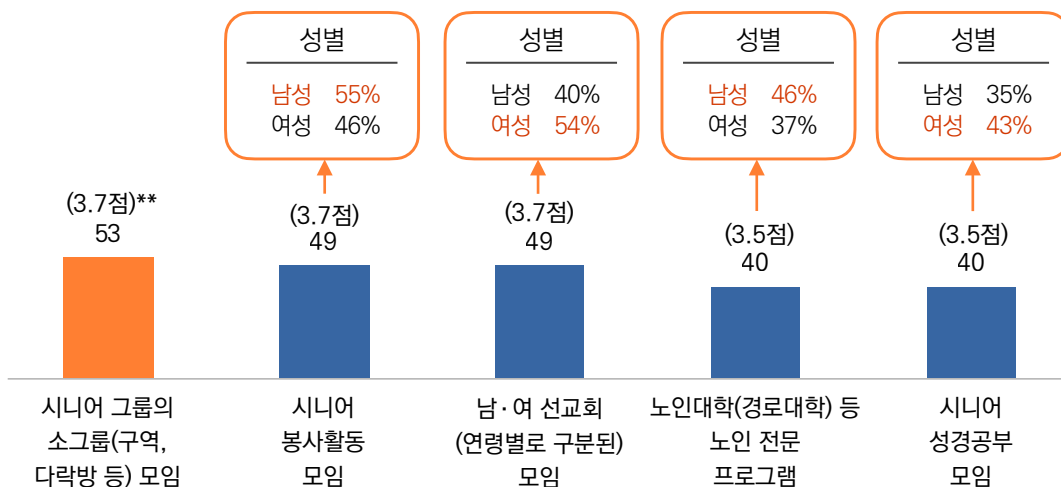


*5점 척도

미국 시니어 프로그램 만족도, 대체로 높지 않다!

- 시니어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소그룹 모임’(53%), ‘시니어 봉사활동 모임’(49%), ‘남·여 선교회 모임’(49%)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대학 등 노인 전문 프로그램’과 ‘시니어 성경공부 모임’의 만족도는 각각 40%로 그다지 높지는 못했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시니어 봉사 활동 모임’, ‘노인대학 등 노인 전문 프로그램’, 여성은 ‘남·여 선교회 모임’, ‘시니어 성경공부 모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성별에 따라 관심사와 참여 욕구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한편, 각 프로그램 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3.5~3.7점으로 보통 수준에 그쳤다.
- 전체적으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각 교회별로 대상자인 시니어들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청취, 그들의 영적 욕구에 맞추는 프로그램 개발/개선이 요구된다.

[그림] 시니어 프로그램 만족도 (각 프로그램 참여자,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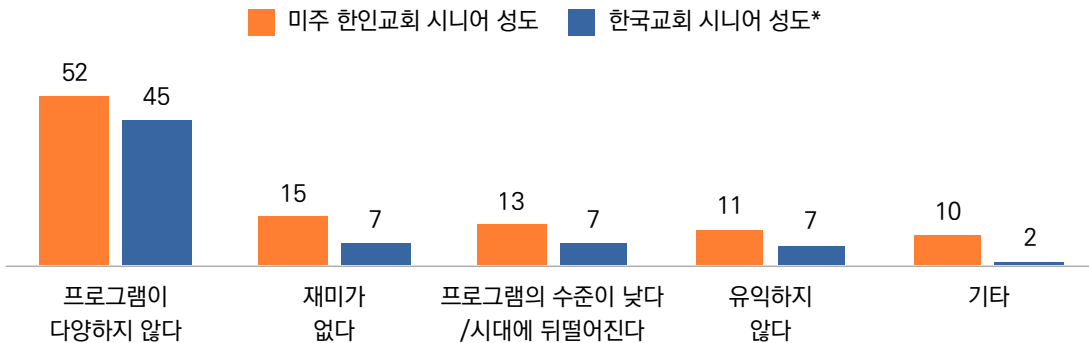
*5점 척도

** () 안은 평균 점수임

미국 시니어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가 관건!

- 시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주 한인교회 출석 성도(시니어)에게 프로그램 개선 사항에 관해 묻은 결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52%)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재미가 없다’ 15%,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 13% 등의 지적도 나왔다.
-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들 역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아, 한인 시니어 성도와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이는 시니어들의 다양한 욕구(성별/나이 등에 따른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시니어 프로그램 개선할 점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된다는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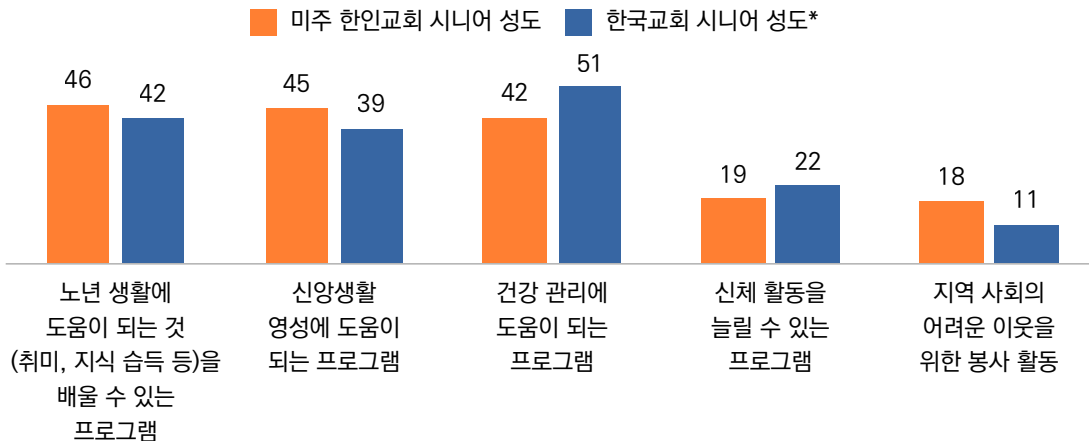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생활 및 신앙 인식과 신앙 실태 조사 보고서, 2022.08.(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2022.05.18.~06.28.)

미국 한인 시니어 성도, ‘배움/영성/건강 프로그램’ 골고루 원해!

- 교회에서 운영하기 원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1+2순위),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취미, 지식 습득 등)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46%), ‘신앙생활/영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45%)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42%)이 주요하게 꼽혔다. 그 밖에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19%,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 18%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 전반적으로 한국 시니어 성도들은 ‘건강 관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반면, 미국 시니어 성도들은 특정 항목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특히,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한국보다 7%p 높아, 한인 시니어들의 봉사 참여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교회에서 운영하기 원하는 시니어 프로그램 종류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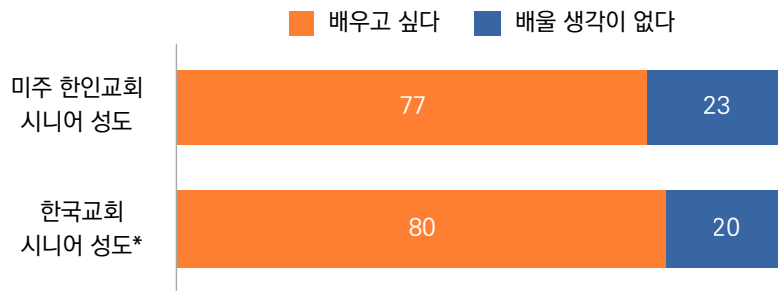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생활 및 신앙 인식과 신앙 실태 조사 보고서, 2022.08.(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2022.05.18.~06.28.)

한미 시니어 10명 중 8명, ‘죽음 준비 교육’ 원해!

-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대상으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죽음 준비 강의 및 교육에 대한 수강 의향률을 묻은 결과, 77%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시니어 성도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죽음 강의에 관심과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들의 응답률도 80%로 유사해, 죽음에 대한 신앙적 접근은 지역을 초월한 시니어 세대의 공통된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그림] 죽음 준비에 대한 강의 수강 의향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보고서(시니어 성도 조사), 2024.09.(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942명, 2024.05.01.~06.12.)

Note)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 조사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100%로 환산하여 재산출함

이번호 요약

1. 미국 시니어, 한국 시니어보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도 높아

-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는 일상생활 만족도 전반에서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보다 더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60%로, 한국 시니어(49%)보다 10%p 이상 높아 차이가 두드러졌다.

2. 미국 시니어, 한국 시니어보다 소그룹 욕구 낮아!

-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두 그룹 간 차이점은 한국 시니어들은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2순위, 41%)에 대한 욕구가 컸는데, 반해 한인교회 시니어는 교회(33%)와 사회(21%)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참여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 소그룹 활동에 대해 한국 시니어가 미국 시니어보다 욕구가 높은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한국교회가 미주 한인교회보다 소그룹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인생 후반이 이렇게 찬란한다? :액티브 시니어 (박수웅 저, 두란노서원)

관련 성경 구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4절)

목회 적용점

오늘날 시니어 세대는 과거와 달리 건강, 수명, 문화, 경제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크게 변화했다. 이는 곧 목회의 관점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 '실버'라고 하면 사회의 중심에서 뒤로 물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이들을 단순한 노화 과정이 아닌 신앙적으로 온전한 성도로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과 설교가 요구된다.

미국 한인교회 고령 교인들이 교회 내 세대 간 교류에서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니어 성도 10명 중 3명은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면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고, '교회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에도 19%가 동의했다. 이는 한국교회 시니어와 비슷한 결과이다.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젊은이와 시니어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시니어 사역을 단순 돌봄 차원에 머물게 하지 말고, 시니어들의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발굴하여 사역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니어가 자발적·자기주도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은퇴 후 삶, 죽음 준비 등 시니어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젊은 교인들과 차별적이지 않게 봉사·선교·리더십 참여 등 핵심 사역(봉사·선교·리더십 참여 등)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시니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중요한 영적 리더이자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교회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나 미국 한인교회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